

#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양상 연구

—언어권과 숙달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송화 연세대학교(언어정보연구원) 부교수

- I. 서론
- II.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양상
- III.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와 정확성
- IV.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오류 양상과 관형사형 어미 발달 양상
- V. 결론 및 함의

## I. 서론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자료는 학습자의 중간언어와 학습자의 언어 습득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 된다. 이미 서상규 외(2002)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 언어 자료의 집합체인 학습자 말뭉치는 학습자 집단 혹은 특정 학습자 집단의 공통적 특질을 발견할 수 있게 하며, 학습자의 중간 언어적 특성을 변인별로 밝힐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즉 학습자 말뭉치를 통해 학습자의 중간언어와 언어 습득 요인과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언어 형태 및 의미의 선호 양상이나 선택 양상 등 학습자의 인식을 고찰할 수 있다. 또한 Granger(1998)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 언어자료의 변인에 따른 분석은 학습자 언어에서의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고 학습자의 중간언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언어 산출물의 집합체인 학습자 말뭉치를 활용하여 이에 나타난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숙달도와 언어권 변인에 따른 중간언어 사용 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는 이미 많은 연구 논문들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고급에 이르기까지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법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와 교수 방안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로는 10만 어절 이상의 학습자 작문에서의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를 분석한 연구(한송화, 2002)를 비롯하여, 동일 말뭉치 중 일부를 추출하여 세부적으로 학습자 언어에서의 오류 양상을 살핀 연구(이진경, 2006; 최서원, 2009/2010) 등이 있었으며,<sup>1</sup> 이외에 개별 연구를 위한 말뭉치를 구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문어와 구어 언어 산출 자료 중 관형사형 어미 사용 양상을 살핀 연구들이 있었다(성지연, 2002; 성지연, 2007; 성지연, 2010; 유승섭, 2010; 김형주, 2014 등).<sup>2</sup> 그리고 이러한 연구 중 특정 언어권 학습자의 언어 자료를 기반으로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과 오류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함미령, 2012; 서만, 2012; 장춘뢰, 2012; 이병청, 2013; 장천, 2014; 장미, 2015; 소문경, 2015; 다시 울찌우타스, 2014; Kesmanee, 2013).<sup>3</sup> 이러한 모든 연구들에서 학습자의 언어 자료를 분석한 후 공통적으로 파악한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양상의 특징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함에 있어서 결합 용언의 품사인 동사와 형용사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 사용에 오류를 보이거나, 관형사형 어미가 가지는 시제상에 대한 오인식으로 인해 오류를 보이거나, 결합하는 의존명사와의 결합 제약에 대한 미인식으로 인한 오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 한송화(2002)에서는 2002년 문화관광부 지원으로 구축된 50만 어절의 학습자 말뭉치 중 오류 주석이 이루어진 10만 어절에서, 오류 어절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진경(2006)에서는 동일한 말뭉치에서 언어권별, 숙달도별로 추출한 총 168개의 2만여 어절을 중심으로, 최서원(2009/2010)에서는 중급 학습자의 27,000여 어절을 중심으로 오류, 비오류 어절의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2 성지연(2002)에서는 일본인 중급 학습자 22,000여 어절의 작문 자료, 성지연(2007)에서는 고려대학교의 한국어 학습자 156명의 구어 자료, 성지연(2010)에서는 고려대학교 한국어 학습자들의 6,777개 문장의 쓰기 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김형주(2014)에서는 외국인 유학생과 여성 결혼 이민자의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인터뷰 자료를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3 이러한 연구 중에는 학습자가 산출한 언어 사용 자료를 활용한 연구도 있으며, 학습자의 메타언어적 문법성 판단이나 설문문을 통해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살핀 연구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오류 양상과 오류 유형의 학습자의 숙달도와 언어권의 변인에 따른 분석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숙달도와 언어권에 따라 관형사형 어미의 발달 단계와 습득 양상을 살필 수 있는 대규모의 언어 자료 구축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0년~2011년 구축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말뭉치에서 언어권과 숙달도를 고려한 약 16만 어절의 말뭉치를 기반으로,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양상을 살피고 이러한 사용 양상이 언어권과 숙달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권과 숙달도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과 습득 양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 II.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양상

### 1. 전체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양상

본 연구에서는 언어권별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양상을 살피기 위해 2010년~2011년 구축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말뭉치 약 40만 어절 중 언어권과 숙달도를 고려하여 약 16만 어절의 하위 말뭉치를 구성하고 이를 대상으로 관형사형 어미를 추출하였다.<sup>5</sup> 우선 관형사형 어미의 언어권별 사용률의 기술통계 분석은 다음과 같다.<sup>6</sup>

4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말뭉치는 2010년과 2011년의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한 것으로 안의정·한송화(2011), 한송화(2011)에 따르면 2010년에 278,059 어절, 2011년에 130,510 어절의 말뭉치를 구축하여 전체 규모 약 40만 어절의 원시말뭉치를 구축하였다고 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말뭉치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학습자의 주제 작문과 자유 작문, 시험 작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자 모어와 국적, 기관 등급이 헤더 정보로 제시되어 있다.

5 말뭉치 구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각 언어권과 숙달도 별로 100개의 텍스트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학습자 구성에 있어서 등급과 숙달도에 다소 불균형이 존재하여 유럽어권과 중국어권 초급, 일본어권 고급의 경우에는 텍스트 수가 100개에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말뭉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률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중국어권	554	9.043	4.322	.184
일본어권	532	10.087	4.577	.198
유럽어권	462	7.694	4.536	.211
합계	1548	8.999	4.573	.116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한국어 학습자는 평균 100어절 당 약 9어절에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어권 학습자가 다른 언어권 학습자에 비해 관형사형 어미를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으며 (7.694어절), 일본어권 학습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087어절).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One 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유럽어권	일본어권	중국어권	전체
1급	텍스트	100	100	54	254
	어절	6,276	7,360	3,716	17,352
2급	텍스트	100	100	100	300
	어절	8,373	9,228	8,485	26,086
3급	텍스트	100	100	100	300
	어절	9,097	9,593	9,403	28,093
4급	텍스트	71	100	100	271
	어절	7,376	11,780	11,407	30,563
5급	텍스트	39	48	100	187
	어절	6,725	8,234	15,452	30,411
6급	텍스트	52	84	100	236
	어절	6,893	10,796	13,051	30,740
전체	텍스트	462	532	554	1548
	어절	44,740	56,991	61,514	163,245

6 본 연구에서는 관형사형 어미의 기술통계 분석을 위해 각 텍스트별로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빈도와 오류 빈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계 처리하기 위해 각 사용 빈도와 오류 빈도를 사용률과 오류율로 수치화하였다. 그리고 통계 분석은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빈도수가 아닌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률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어 작문번호 1번(중국어권, 1급)의 경우 전체 어절 수는 47어절이며, 사용한 관형사형 어미는 1개였으므로 작문번호 1번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률은 2.128이다.

7 본 연구에서는 사용률과 오류율의 숙달도별, 언어권별 평균 차이의 검정을 위해 One

표 2.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률(언어권별) 사후 검증 결과

	N	평균	표준 편차	F값/유의 확률	사후검증결과
중국어권(a)	554	9.043	4.322	35.398 /.000**	b>a>c (Scheffe 검증)
일본어권(b)	532	10.087	4.577		
유럽어권(c)	462	7.694	4.536		
합계	1548	8.999	4.573		

\*p<0.05, \*\*p<0.0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어권 학습자는 일본어권 학습자에 비해서는 관형사형 어미를 덜 사용하며, 유럽어권 학습자에 비해서는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유럽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순으로 관형사형 어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등급별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률을 살펴보았는데, 등급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률(등급별) 사후 검증 결과

	N	평균	표준 편차	F값/유의 확률	사후검증결과
1급	254	4.502	3.902	223.465 /.000**	4급, 5급, 6급> 3급>2급>1급 (Dunnett T3 검증)
2급	300	6.580	3.124		
3급	300	8.178	3.399		
4급	271	11.705	3.676		
5급	187	12.129	3.448		
6급	236	12.371	3.375		

\*p<0.05, \*\*p<0.0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자의 등급별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률을 살펴보면, 1급은 100어절 당 평균 4.5어절에서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

---

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등분산이 가정되는 경우에는 Scheffe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Dunnett T3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들로 분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Tukey 방법으로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하고 있는 반면, 6급은 평균 12.4어절에서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률은 1급과 2급, 3급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4급, 5급, 6급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에 있어서 1급에서부터 3급까지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나 4급 이후에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관형사형 어미 사용에 있어서는 4급 정도가 되면 거의 고급 수준의 관형사형 사용률과 유사한 수준까지 사용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2.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별 사용 양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각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 -던’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하였다.

표 4. 한국어 학습자의 각 관형사형 어미 사용률<sup>8</sup>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은 사용률	1548	3.145	2.460	0	13.559
는 사용률	1548	2.746	2.173	0	11.111
을 사용률	1548	2.922	.0548	0	12.766
던 사용률	1548	.186	.0124	0	3.738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률을 보면, 관형사형 어미 중 ‘-은’의 사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을’, ‘-는’ 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던’의 사용이 매우 적다.<sup>9</sup> 그리고 이들 각

8 엄밀하게 본다면, ‘-은’의 사용은 동사와 형용사에 사용된 ‘-은’의 사용을 달리 계산해야 할 것이나, 이에서는 그에 따른 분석은 하지 않았다. 다만 한송화(2015)에 따르면, 약 44,000 어절의 학습자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형용사 결합 ‘-은’과 동사 결합 ‘-은’의 비율이 5:1정도의 비율로 나타났다.

9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의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양상과 동일한 결과이다. 즉 최서원(2010)에서도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률을 “A-은>-을>-는>V-은>-었을>-었던>-던” 순이라고 하여 ‘-은’의 사용이 가장 많다고 한 바 있다.

관형사형 어미는 ‘-던’을 제외하면 각 작문 당 최대 약 11개 어절에서 13개 어절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들 각 관형사형 어미 ‘-은/ㄴ, -는, -을/ㄹ, -던’ 사용의 숙달도와 언어권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숙달도에 따른 각 관형사형 어미의 기술 통계 분석과 사후 검증 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5. 한국어 학습자의 각 관형사형 어미 사용률(등급별) 사후 검증 결과

	등급	N	평균	표준 편차	F값/유의 확률	사후검증결과
은 사용률	1급	254	1.713	2.233	75.036 /.000**	5급,6급>4급>3급 >1급 (Tukey 검증)
	2급	300	2.174	2.050		
	3급	300	2.682	2.089		
	4급	271	3.938	2.371		
	5급	187	4.501	2.207		
	6급	236	4.524	2.334		
는 사용률	1급	254	1.416	1.879	58.888 /.000**	4급,5급,6급> 2급, 3급>1급 (Tukey 검증)
	2급	300	2.393	1.934		
	3급	300	2.150	1.752		
	4급	271	3.440	2.259		
	5급	187	3.838	2.064		
	6급	236	3.722	2.099		
을 사용률	1급	254	1.373	1.706	105.352 /.000**	4급>5급,6급> 3급 >1급, 2급 (Tukey 검증)
	2급	300	1.664	1.560		
	3급	300	3.194	2.084		
	4급	271	4.224	2.127		
	5급	187	3.685	1.792		
	6급	236	3.742	1.829		
던 사용률	1급	254	0	0	26.655 /.000**	2급, 6급> 3급,4급,5급 (Dunnett T3 검증)
	2급	300	0.349	0.649		
	3급	300	0.152	0.470		
	4급	271	0.103	0.347		
	5급	187	0.105	0.287		
	6급	236	0.383	0.653		

\*p<0.05, \*\*p<0.01

먼저 ‘-은’ 사용률을 보면, 5급과 6급에서 ‘-은’을 가장 많이 사용하



였으며, 그 다음은 4급, 3급, 1급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는’의 사용률은 4급, 5급, 6급의 사용률과 2급, 3급의 사용률, 그리고 1급의 사용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는’ 사용률로 보면, 초급의 1급과 초중급의 2급-3급, 그리고 중고급의 4급~6급의 세 집단으로 사용률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이 집단을 나눌 수 있음은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사용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함의를 가진다. 관형사형 어미 ‘-은’의 경우에는 동사에 결합하는 경우보다는 형용사에 결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sup>10</sup> ‘-는’은 ‘있다, 없다’류의 일부 형용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동사에 결합하여 문장을 관형화하여 관형절 구성을 이루고 있으므로, ‘-는’ 사용률의 유의미한 차이는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절 구성율과도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절 구성은 1급과 2-3급, 그리고 4-6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을’ 사용률에 있어서는 4급의 사용률이 다른 급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았는데, 이는 4급 작문에서 ‘-을 것이다, -을 수 있다, -을 때’, 그리고 ‘-을 겸, -을 따름이다, -을 뻔하다’와 같은 ‘-을’ 결합 문법 항목의 사용이 많았던 것과 관련된다.<sup>11</sup>

- (4)ㄱ. 미신이나 금기를 믿는 것이 유치할 따름입니다.(4급\_유럽어권 060)<sup>12</sup>  
 ㄴ. 운동도 할 겸 친구도 만날 겸 축구를 했어요.(4급\_유럽어권 047)  
 ㄷ. 쉬는 시간에 놀았다가 보니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몇 번 수업에 지각할

10 각주 9)를 참조하기 바란다.

11 본 연구에서의 분석 대상이 된 말뭉치는 연세대학교의 한국어학당 학습자의 시험과 자유 작문으로 이루어진 말뭉치였으므로 한국어학당의 문법 교수요목과 작문에 나타나는 문법 항목 간의 관련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 대상이 된 말뭉치의 산출 기관의 교재 『연세한국어4』의 문법 교수요목에서도 ‘-을’과 관련된 문법 교수요목으로 ‘-을 뻔하다, -을 겸, -을 따름이다, -을 필요가 없다’ 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12 본고에서의 학습자 말뭉치에서의 예문은 문법 및 어휘, 철자의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였다. 그리고 예문 뒤의 숫자는 본 연구에서 부과한 해당 언어권 등급에서의 작문의 고유번호이다.

뻘뻘했어요.(4급\_중국어권 031)

- (5)ㄱ. 좀 이상하지만 저를 너무 사랑한 사람과 결혼하면 나중에 생활에 더 편할 것 같아요.(4급\_중국어권 097)
- ㄴ. 성격을 맞추면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생각을 간단하게 말하면 상대방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4급\_중국어권 095)
- ㄷ. 감시 카메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4급\_중국어권 086)
- ㄹ. 그래고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면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될 거예요.(4급\_일본어권 042)

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급의 문법 교수요목과 관련한 ‘-을’ 결합 문법 항목의 사용과 (5)와 같이 4급 작문에서의 주제인 ‘나의 결혼관, 감시카메라의 필요성, 나의 시간 관리 방법’과 관련하여 ‘-을 수 있다, -을 것이다’의 사용이 많음이 4급에서의 ‘-을’ 사용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던’ 사용률에 있어서는 2급과 6급에서의 사용률이 다른 숙달도에서의 사용률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을’의 분석에서와 유사하게, 2급의 새로운 문법 교수 항목으로 ‘-던’이 출현하여 이의 영향으로 다른 등급에 비해 유의미하게 사용률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예문 (6) 참조). 그리고 6급에서의 사용률은 6급의 작문 주제인 ‘졸업 소감’과 관련하여 아래의 예문 (7)과 같은 문장 사용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던’은 본 말뭉치의 산출 기관에서는 2급에서 교수되는 문법 항목이므로 1급의 학습자에게서는 전혀 산출되지 않고 있었다.

- (6)ㄱ. 저는 갔던 곳 이 중에서 해남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2급\_중국어권 001)
- ㄴ. 그 호텔이 제 갔던 호텔 중에서 제일 예쁜 곳이에요.(2급\_중국어권 012)
- ㄷ. 제주도에서 2년 전에 묵던 호텔에 다시 묵고 싶어요.(2급\_일본어권 059)
- (7)ㄱ. 어학에서 공부했던 기간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6급\_유럽어권 003)

ㄴ. 마지막으로 나를 가르쳐주셨던 선생님들, 감사하고 사랑한다.(6급\_중국어권 010)

이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 -던’의 사용률을 살펴본 결과, 관형사형 어미 ‘-은, -는’은 등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며 초급에 비해 중고급으로 가면서 사용률이 유의미하게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이 많아짐은 숙달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을, -던’의 사용은 등급보다는 이들을 포함하는 복합 문형의 사용이나 산출 자료의 주제와 관련성을 더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각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이 언어권별로 차이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6. 각 관형사형 어미 사용률(언어권별) 사후 검증 결과

	언어권	N	평균	표준 편차	F값/유의 확률	사후검증 결과
는 사용률	중국어권(a)	554	2.400	1.861	74.873 /.000**	b>a,c (Dunnett T3 검증)
	일본어권(b)	532	3.627	2.382		
	유럽어권(c)	462	2.146	1.938		

\*p<0.05, \*\*p<0.01

위와 같이 각 관형사형 어미의 언어권별 차이를 검정한 결과, 일본어권 학습자는 다른 언어권 학습자보다 ‘-는’을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일본어권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에 비해 문장을 관형화하는 관형절 구성을 더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었다.<sup>13</sup>

13 ‘-는’ 외에도 ‘-은, -을, -던’의 사용률에서도 언어권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유의한 차이가 함의하는 바가 크지 않아 이에서는 이러한 수치는 보이지 않았다.

### Ⅲ.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와 정확성

#### 1.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와 정확성

앞 절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률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학습자가 관형사형 어미를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것이 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이미 많은 연구들에게도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들은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에 많은 오류를 보인다. 따라서 이에서는 학습자의 숙달도와 언어권에 따라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율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표 7. 관형사형 어미 전체 오류율(언어권별) 사후 검증 결과

	N	평균	표준 편차	F값/유의 확률	사후검증결과
중국어권(a)	537	12.339	16.187	8.595 /.000**	a,c>b (Scheffe 검증)
일본어권(b)	521	8.746	12.990		
유럽어권(c)	437	12.100	17.330		
합계	1495 <sup>14</sup>	11.017	15.593		

\*p<0.05, \*\*p<0.0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는 관형사형 어미 사용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약 11%의 오류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관형사형 어미 100개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중 11개는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율을 언어권별로 살펴보면, 일본어권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오류율이 중국어권이나 유럽어권 학습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어권 학습자가 중국어권이나 유럽어권 학습자보다 관형사형 어미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어권과 유럽어권 학습자는 일본어권

14 앞서 <표 1>에서의 텍스트 수(N)와 <표 7>의 텍스트 수(N)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앞서 사용률 분석에서는 전체 텍스트가 그 대상이었으나, 오류율 분석에서는 관형형 어미가 나타나지 않은 텍스트는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학습자에 비해 텍스트 간의 편차가 크다. 즉 중국어권이나 유럽어권 학습자는 일본어권 학습자보다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함에 있어서 학습자 간의 정확성에 편차를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등급별 오류율에 대한 기술통계와 검정결과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8. 관형사형 어미 오류률(등급별) 사후 검증 결과

	N	평균	표준 편차	F값/유의 확률	사후검증결과
1급	203	11.760	22.285	4.657 /.000**	2급>3급, 4급, 5급, 6급 (Tukey 검증)
2급	298	14.493	20.917		
3급	300	10.614	13.749		
4급	271	10.142	11.968		
5급	187	9.012	8.528		
6급	236	9.095	8.915		

\*p<0.05, \*\*p<0.0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류율 평균으로 볼 때 2급의 오류율이 다른 급에 비해 가장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급의 오류율이 2급보다 다소 낮으나 2급이나 그보다 오류율이 낮은 3급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1급의 오류율이 2급보다 낮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아마 1급의 사용률과도 관련이 될 것이다. 즉 1급에서는 관형사형 어미를 다른 급에 비해 유의미하게 적게 사용했으므로 사용한 관형사형 어미만을 대상으로 한 오류율 산정에서는 2급보다 다소 낮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에 있어서 초급에서는 매우 부정확하나 3급부터는 정확성이 다소 높아진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확성은 3급 이후 고급이 된다고 해도 유의미하게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등급별 오류율의 차이가 각 언어권별로도 동일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피기 위해 각 언어권의 등급별로 오류율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9. 관형사형 어미 오류율(언어권 등급별) 사후 검증 결과

	등급	N	평균	표준 편차	F값/유의 확률	사후검증결과
일본어 권	1급	90	7.853	16.416	3.700 /.003*	2급> 4급,5급,6급 (Dunnett T3 검증)
	2급	99	13.205	18.740		
	3급	100	9.691	11.850		
	4급	100	6.888	7.830		
	5급	48	6.237	6.038		
	6급	84	6.969	7.453		

\*p<0.05, \*\*p<0.01

중국어권과 유럽어권 한국어 학습자 작문에서는 등급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어권과 유럽어권 학습자는 등급이 높아지더라도 관형사형 어미 사용의 정확성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본어권 학습자의 경우에는 위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급, 5급, 6급의 오류율이 2급의 오류율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2급에서는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으나 4급 이후가 되면 정확성이 어느 정도 향상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1급의 오류율은 다른 등급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률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언어권별로 등급 간 오류율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본어권 학습자만이 등급 간 오류율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중국어권과 유럽어권 학습자들은 등급간 오류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본어권 학습자는 등급이 올라가면서 정확성이 다소 향상된다고 말할 수 있으나 중국어권과 유럽어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2.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별 오류와 정확성

앞에서 관형사형 어미 전체의 오류율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각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율과 이들의 오류율이 언어권과 등급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각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율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표 10. 한국어 학습자의 각 관형사형 어미 오류율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은 오류율	1300	9.325	19.824	0	100
는 오류율	1273	10.853	21.285	0	100
을 오류율	1298	4.756	14.693	0	100
던 오류율	240	17.292	35.791	0	100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던’의 오류율이 가장 높으며, ‘-는’과 ‘-은’의 오류율이 그 다음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을’은 다른 관형사형 어미에 비해 오류율이 다소 낮다.<sup>15</sup> 그리고 각 관형사형 어미 오류율의 편차에 있어서도 ‘-던’ 오류율의 편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는’이나 ‘-은’ 오류율의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관형사형 어미 ‘-던’은 정확성도 가장 떨어지며, 학습자에 따른 편차도 큰 문법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율이 언어권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관형사형 어미 ‘-는’과 ‘-던’의 오류율은 언어권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을’이나 ‘-은’은 언어권에 따른 차이가

15 이와 같이 다른 관형사형 어미에 비해 ‘-을’의 오류율이 낮음은, ‘-을’ 것이다. -을 수 있다. -을 것 같다. -을 때와 같은 문법 항목의 한 요소로 사용된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에는 이들 문법 항목을 거의 하나의 단위처럼 사용하므로 ‘-을’의 사용에 많은 오류를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 중 ‘-을’의 오류율이 적음은 이전 연구와도 일치된 결과이다. 즉 최서원(2010)에서도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율이 던>었던>있을>는>V-은>을>A-은 순이라고 하였다.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1. 각 관형사형 어미 오류율(언어권별) 사후 검증 결과

	언어권	N	평균	표준 편차	F값/유 의확률	사후검증 결과
는 오류율	중국어권(a)	453	12.725	22.495	3.074 /.047*	a>b (Dunnett T3 검증)
	일본어권(b)	476	9.296	17.629		
	유럽어권(c)	344	10.541	23.975		
던 오류율	중국어권(a)	69	12.560	32.389	5.603 /.004**	c>a,b (Dunnett T3 검증)
	일본어권(b)	106	12.736	30.650		
	유럽어권(c)	65	29.744	43.724		

\*p<0.05, \*\*p<0.0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는’의 오류율에 있어서 중국어권 학습자는 일본어권 학습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유럽어권 학습자의 ‘-는’ 오류율은 일본어권이나 중국어권의 오류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일본어권 학습자의 ‘-는’ 사용은 중국어권 학습자에 비하면 유의미하게 더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던’의 오류율에 있어서는 유럽어권 학습자의 오류율이 중국어권이나 일본어권 학습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유럽어권 학습자들이 ‘-던’을 다른 언어권 학습자에 비해 매우 부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등급별로 관형사형 어미 ‘-은, -는, -을, -던’의 오류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살펴본 결과 관형사형 어미 ‘-은’과 ‘-는’, ‘-던’은 등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관형사형 어미 ‘-을’은 등급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12. 각 관형사형 어미 오류율(등급별) 사후 검증 결과

	등급	N	평균	표준 편차	F값/유의 확률	사후검증결과
을 오류율	1급	126	5.159	19.231	2.895 /.013*	3급>5급 (Dunnett T3검증)
	2급	210	6.833	21.141		
	3급	277	6.381	16.018		
	4급	268	3.607	9.800		
	5급	186	2.601	8.871		
	6급	231	3.765	10.685		

\*p<0.05, \*\*p<0.0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을’은 등급이 올라가면서 평균 오류율이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3급과 5급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3급이 5급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 전체적으로 각 관형사형 어미의 등급별 차이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sup>16</sup> 즉 이를 볼 때, ‘-을’을 제외하고는 다른 관형사형 어미 ‘-는, -은, -던’의 경우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가 중고급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줄지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 IV.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오류 양상과 관형사형 어미 발달 양상

### 1.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 기능 오류와 학습자 인식

한국어 학습자에게 있어서, 의미와 기능에 적절한 어미를 선택하여

16 각 언어권별로 등급에 따른 차이를 검정하였으나, 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용언을 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이의 형태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이다. 앞서 많은 연구들에서도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 중 다음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를 생략하거나 첨가하거나 혹은 관형사형 어미를 다른 형태 혹은 기능 범주의 어미로 대체하는 오류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 (8)ㄱ. 제가 즐겁게 지내(✓지낼) 수 있을 거예요.(2급\_중국어 033)
  - ㄴ. 요즘 쉬(✓쉬는) 신간에 저는 반 친구와 같이 한국말로 이야기합니다.(1급\_일본어권 041)
- (9)ㄱ. 전통 문화 인간한테에도 매우 중요한(✓중요한) 문화예요.(5급\_중국어 013)
  - ㄴ. 따라서 본(✓보는) 사람들이점점 없어졌어요.(5급\_중국어 065)
- (10)ㄱ. 신랑이 웨딩카에 내려자마자 들(✓들어) 준 다음 신부 집에 들어갈 수 있다.(2급\_중국어 031)
  - ㄴ. 택시는 안타로 식당 빈 자리 없어(✓없을) 것 같아요.(1급\_중국어 004)
- (11)ㄱ. 한국에서 오는(✓오기) 전에 부모님께 많이 걱정했어요.(2급\_중국어 044)
  - ㄴ. 이번 여행은 즐거워(✓즐겁기) 바라겠습니다.(2급\_중국어 021)
- (12)ㄱ. 재테크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계획이 투자(✓투자하는) 듯 싶어요?(5급\_중국어 011)
  - ㄴ. 쇼핑(✓쇼핑하는) 동안 에스그리무 먹고 좋아졌군요.(2급\_중국어 028)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 오류 중 (8)과 같이 용언 뒤에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지 않거나, (9)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를 부정확하게 사용하거나 (10)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 ‘-은, -을’ 등을 음운적으로 유사한 ‘-음, -어/아’ 등 다른 형태의 어미와 서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등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11)과 같이 관형사형 어미를 ‘-기, -게, -고’ 등 다른 의미 기능을 가지는 어미와 서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등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산출되는 오류가 나타나고 있으며, (12)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의 선행 요소로 용언이 아닌 명사

를 사용하거나,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등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문법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오류도 있다.

이러한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는 위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급 학습자에게서, 그리고 중국어권 학습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가 언어권별로, 그리고 등급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표 13. 관형사형 어미의 기능 및 형태 오류율(등급별) 사후 검증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검증결과
1급	203	5.942	16.101	6.036 /.000**	1급,2급,3급>6급 (Dunnett T3 검증)
2급	298	3.826	11.397		
3급	300	3.294	8.166		
4급	271	2.421	6.573		
5급	187	2.103	5.059		
6급	236	1.606	3.379		
합계	1495	3.186	9.422		

\*p<0.05, \*\*p<0.0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오류는 6급과 1급, 2급, 3급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 표에서 보듯이 1급에서 6급까지 등급이 올라갈수록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가 줄고는 있으나, 1급에서 3급까지의 오류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4급과 5급의 오류율 차이도 그 이전 단계나 그 이후 단계와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는 5급까지도 관형사형 어미 사용에 있어서 형태를 잘못 사용하거나, 명사형이나 부사형 등의 다른 기능의 어미를 관형사형 어미 대신 사용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는 6급에 이르러서야 유의미하게 적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언어권별로 오류율을 살펴보았는데 중국어권, 유럽어권 학습자와 일본어권 학습자 간에 유의미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관형사형 어미의 기능 및 형태 오류율(언어권별) 사후 검증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검증결과
중국어권(a)	537	4.561	11.362	15.253 /.000**	a,c>b (Dunnett T3 검증)
일본어권(b)	521	1.446	5.692		
유럽어권(c)	437	3.571	10.038		

\*p<0.05, \*\*p<0.0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기능의 미인식으로 인한 오류는, 일본어권 학습자가 중국어권이나 유럽어권 학습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적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어권 학습자가 중국어권이나 유럽어권 학습자보다 관형사형 어미를 형태적으로 그리고 기능에 맞게 더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인식 오류와 학습자 인식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는 한국어 교수 학습 단계에서 가장 초급에 교수 학습되는 문법 항목이면서도 시제와 상에 따라 다른 형태를 사용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한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기능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나, 관형사형 어미가 가지는 시제와 상적 의미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오류가 나타난다.

- (13)ㄱ. 수박이 제가 좋아하는(✓좋아하는) 과일입니다. (1급\_중국어 017)  
 ㄴ. 옷을 입는(✓입은) 눈 사람을 만들었요.(1급 유럽어권)  
 ㄷ. 형제가 새로운 신발을 사는(✓살) 용돈이 없어요. (1급 유럽어권)  
 ㄹ. 어머니께 만들(✓만든) 요리를 먹고 싶어요.(1급\_일본어권 022)  
 ㄴ. 졸업한 후에 내가 계속 한국에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지만 어학당에 있는(✓있었던) 시절은 나한테 아주 소중한 시절이 될 수 있다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는 시제와 상에 따라 ‘-은, -는, -을, -던’의 선택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는 한국어 학습자가 고급에 이르기까지 습득하기 어려운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가 등급 간, 그리고 학습자의 언어권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15.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상 오류율(등급별) 사후 검증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검증결과
1급	203	3.028	10.883	7.004 /.000**	1급<2급,3급,4급,5급,6급 (Dunnett T3 검증)
2급	298	8.966	16.655		
3급	300	6.648	11.307		
4급	271	6.694	9.475		
5급	187	5.875	6.193		
6급	236	7.175	7.745		

\*p<0.05, \*\*p<0.0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는 1급이 다른 등급에 비해 유의미하게 오류율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로써 1급 학습자들이 다른 등급의 학습자에 비해 관형사형 어미를 시제와 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1급의 관형사 어미의 사용률이 다른 등급에 비해 유의미하게 적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제와 상에 따른 등급별 오류율의 차이는 그리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시제와 상에 따른 오류는 고급에서까지 오류가 많이 나타나며, 그 오류율이 줄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시제와 상에 따른 오류가 언어권별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와 상과 관련한 오류는 초급에서부터 많이 나타나는 오류이며 이러한 오류가 고급에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는 언어권에 상관없이 한국어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오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3.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절 구성과 학습자 인식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는 용언에 결합하여 용언을 서술어로 하는 내포문을 구성하여 이를 모문의 관형절이 되게 한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에게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은 단순한 어미의 활용을 넘어 복문의 문장 구성 능력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복문의 구성은 언어를 학습하는 초급 단계의 학습자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문장 구조화를 제대로 못하여 문장 구성에 오류를 보이기도 한다.

- (14)ㄱ. 저는 계절을 좋아하는 가을이에요.(✓제가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이에요)(1급\_중국어 020)
- ㄴ. 여행 동안 저는 지난 번 묵던 호텔이에요.(✓지난번 묵었던 호텔에 묵었어요.)(2급\_중국어 047)
- ㄷ.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려면 먼저 한국어를 능숙하게 해야 하고 한국어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통역과 번역 능력이 요구된 조건이 필요합니다(✓통역과 번역 능력이 요구됩니다/통역과 번역 능력의 조건이 필요합니다.)(중국어 5급\_094)
- (15)ㄱ. 하지만, 공부는 생각보다(✓생각한 것보다) 어려워요. (1급\_일본어권 024)
- ㄴ. 스위스에서 그럴(✓그런 경우는) 없어요.(1급\_유럽어권 063)
- ㄷ. 패운 지식을 기억는지 읽을(✓읽은 것을) 토해서 통해서 알습니다.(4급\_중국어 016)

위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들은 관형절 구성을 모문 내에서 제대로 구조화하지 못하여 전체 문장의 구조에 오류를 보이고 있다. 또한 (14ㄷ)과 같이 고급에서도 여전히 관형절의 문장 구성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문장이 길어지고 복합적 사고를 드러내는 문장 구성을 함에 있어서 이를 정확한 문법적 기제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어순에 맞게 배열하고 적절한 문법 요소를 삽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풀이된다. 또 (15)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절 구성에 있어서 관형사형 어미와 머리명사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관형절만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오류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 사용에 있어서 관형절 구성을 제대로 구조화하지 못하는 오류가 등급 간 혹은 언어권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표 16. 관형사형 어미의 문장 구성 오류율(등급별) 사후 검증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검증결과
1급	203	3.036	12.875	6.038/.000**	1급>3급, 4급, 5급, 6급 (Tukey 검증)
2급	298	1.702	6.405		
3급	300	0.746	4.003		
4급	271	0.707	2.512		
5급	187	0.980	2.499		
6급	236	0.290	1.471		

\*p<0.05, \*\*p<0.0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급과 2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1급과 3급~6급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관형절 문장 구성의 오류는 초급과 중고급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중고급에 가면 관형절 문장 구성과 관련한 오류는 유의미하게 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언어권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17. 관형사형 어미의 문장 구성 오류율(언어권별) 사후 검증 결과

	N	평균	표준편차	F값/유의확률	사후검증결과
중국어권(a)	537	1.090	5.759	13.257/.000**	c>a>b (Dunnett T3 검증)
일본어권(b)	521	0.347	2.181		
유럽어권(c)	437	2.345	8.793		

\*p<0.05, \*\*p<0.01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형사형 어미의 관형절 문장 구성에 있어서는 유럽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관형절 문장 구성에 있어서 유럽어권 학습자가 문장 구성의 오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중국어권 학습자, 그리고 일본어권 학습자 순이었다. 즉 한국어와 통사 구조가 유사한 일본어권 학습자는 관형절 구성 시 다른 언어권 학습자에 비해 다소 어려움이 덜할 것이며, 유럽어권 학습자는 관형절을 구성할 때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함의

본고에서는 숙달도와 언어권을 고려한 약 16만 어절의 학습자 말뭉치를 기반으로 이들 말뭉치에 나타나는 언어권과 숙달도 변인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은 언어권과 등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언어권별로는 유럽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순으로 관형사형 어미를 많이 사용하여 일본어권 학습자가 다른 언어권 학습자보다 관형사형 어미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등급별로는 1급, 2급, 3급, 4급 순으로 관형사형 어미를 많이 사용하여 4급까지는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이 등급이 높아지면서 점점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급과 5급, 6급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4급에 이르면 고급 수준과 유사한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을 보였다. 그리고 각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률을 살펴본 결과 관형사형 어미 ‘-은’과 ‘-는’은 등급이 올라가면서 사용도 많아지고 있었으며, ‘-을’과 ‘-던’의 사용률은 등급에 따른 차이보다는 이들 문법 항목의 교수 시기와 작문의 주제나 장르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은’, ‘-는’의 사용이 많아짐은 숙달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관형사형 어미 ‘-



을, -던'의 사용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숙달도 판정 시 관형사형 어미 '-은, -는'의 사용률이 유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의 정확률을 보면, 일본어권 학습자가 다른 언어권 학습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중국어권이나 유럽어권 학습자는 관형사형 어미 사용의 정확성에 있어서 학습자간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각 관형사형 어미 별로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던'의 오류율이 가장 높았으며, '-던'의 오류율은 학습자간 편차도 다른 관형사형 어미에 비해 큼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양상에 따른 숙달도와 언어권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미인식으로 인한 오류는 초급에서부터 중급과 5급 까지도 계속 이어지며, 6급에 이르러서야 유의미하게 적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제상에 따른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는 초급에서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오류율이 줄지 않아 고급 학습자도 이를 여전히 어려워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한 관형절 문장 구성은 초급과 중고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중고급으로 가면서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언어권별로는 시제상에 따른 오류는 언어권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모든 언어권 학습자가 이를 어려워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었다. 반면,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기능 미인식으로 인한 오류는 일본어권 학습자가 다른 언어권 학습자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 이들이 관형사형 어미를 형태적으로 그리고 기능에 맞게 더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관형절을 포함한 문장 구성에 있어서는 한국어와 관형절 구성의 통사 구조가 다른 유럽어권 학습자가 다른 언어권 학습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오류율이 높아 다른 언어권 학습자에 비해 관형절 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유럽어권과 중국어권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와 관형절 교수에 있어서는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기능, 그리고 관형절 구성에 대한

교수가 좀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상적 의미에 대한 교수는 모든 언어권에서 고급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교수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5.10.29. 투고되었으며, 2015.11.05. 심사가 시작되어 2015.12.0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형주(2014), 「오류 분석을 통한 관형사형 어미 교육 방안」,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다시 올찌우타스(2014),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교수 방안」,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만(2012), 「한국어 과거 회상 관형사형 어미 '-던'과 '-있던'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상규·유현경·남윤진(2002),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1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7-156.
- 성지연(2002),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사용 연구: 일본인 중국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지연(2007), 「초급, 중급, 고급 과정에 나타나는 한국어 학습자의 어말 어미 사용 실태 연구」, 『이중언어학』 34, 이중언어학회, 221-245.
- 성지연(2010), 「한국어 학습자의 내포문 사용 오류 연구—대치 오류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5,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51-74.
- 소문경(2015),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형사형어미 표현의 교육 방안: ‘-(으)ㄴ, -는, -(으)ㄹ, -던’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의정·한송화(2011), 「한국어학당 학습자 말뭉치의 구축과 활용」, 『언어사실과 관점』 2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53-187.
- 유승섭(2010),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적 오류와 교육 방안」, 『한글』 287, 한글학회, 73-108.
- 이병청(201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교육 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경(2006),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201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천(2014), 「중국인 학습자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오류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춘뢰(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관형사형 어미의 교육방안 연구」, 전남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아(2004), 「영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오류 분석」, 『언어와 문화』 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83-101.
- 최서원(2009),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교육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서원(2010),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대치 오류 분석—중국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5,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157-185
- 한송화(2002),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전성어미에서의 오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571-608.
- 한송화(2011), 『한국어학당 학습자 말뭉치3 구축 보고서』,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 한송화(2015),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절과 관형사형 어미 사용 양상 연구—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24, 한국문법교육학회, 211-243
- 함미령(2012), 「중국어권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 실태 및 오류 원인」,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Granger, Sylviane (1998). The computer learner corpus—A versatile new source of data for SLA research—, In S. Granger (Eds.), *Learner English on Computer*, 3-18, London: Longman.
- Kesmanee, Chutimon (2013). 「숙달도에 따른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과거 관형사형 어미 사용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어교재>

- 『연세한국어4』, 2008,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한국어5』, 2009,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한국어6』, 2009, 연세대학교 출판부.

##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 양상 연구

—언어권과 숙달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송화

학습자 언어자료의 변인에 따른 분석은 학습자 언어에서의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고 학습자의 중간언어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급에서 고급까지의 일본어권, 중국어권, 유럽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자료를 기반으로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과 오류를 변인별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 사용은 언어권과 등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언어권별로는 일본어권 학습자가 관형사형 어미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등급별로는 중급까지는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이 늘지만, 고급 단계에 이르면 관형사형 어미의 사용률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어권 학습자가 다른 언어권 학습자에 비해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었으며, 관형사절의 문장 구성은 유럽어권 학습자의 정확률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형절 구성과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와 기능과 관련한 오류는 중급 혹은 고급 단계에 이르면 정확성이 향상되었으나, 시제상적 인식은 고급까지도 제대로 습득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학습자 말뭉치, 관형사형 어미, 중간언어, 습득, 언어권 변인, 숙달도 변인

## **ABSTRACT**

### **The Use of Adnominal Endings by Koran Learners**

—Focusing on Proficiency and Native Languages

**Han, Song Hwa**

This paper tried to investigate Korean learner's acquisition of Korean adnominal endings focusing on proficiency and learners' native languages. For this purpose I investigated frequencies of adnominal endings in Korean learners' corpus. And I analysed Korean learners' errors when they used adnominal endings. Based on the result of analysing, Japanese Korean learners use the adnominal endings more correctly than Chinese and European Korean learners. And Korean learners have many errors using adnominal endings in intermediate and high levels as well as basic levels. What is more, advanced learners have the tense and aspect errors using adnominal endings. European Korean learners have more sentence structure errors than others. The reason why they have difficulties using adnominal endings is that the way of organizing of Korean relative clause is different from European's.

**KEYWORDS** learner's corpora, adnominal endings, interlanguage, acquisition, learner's native language, learner's proficiency